

# T A E I N

## 30TH ANNIVERSARY

1 9 8 7 - 2 0 1 7

### 태인 30년의 발자취

# 희망을 꿈꾼 이들의 역사

# 1987



- 1987 (주)태인 설립(청주시 신봉동 소재)
- 1987 금성계전(주) 저압차단기 OEM 생산
- 1989 태인 청주공장 사옥 신축 및 이전

# 1990

- 1992 금성반도체 메모리 모듈 생산 개시
- 1994 태인 서울사무소 개설
- 1996 LG산전 우수협력회사로 선정
- 1997 ISO 9002 인증 획득
- 1998 충청북도 으뜸기업 지정, 조세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 1998 배선용 차단기 BF a.c Type 사내 영입



(주)태인은 1987년 창업한 이래 품질과 성능에서 앞서가는 누전차단기와 배선용차단기를 생산해 왔다. 그리고 21세기는 디지털 환경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흐름을 예측하고 1992년 전자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반도체 메모리 모듈을 생산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환경에 잘 순응하며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무결점 품질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신뢰할 수 있는 으뜸기업, 충북지역 착한기업 1호 등 호평을 받고 있다.

# 2000

# 2010

- 2000** 태인 청주사옥 2차 증축
- 2001** LS산전(주) QCL대상 수상
- 2004** 배선용 차단기 ABS 30/100 Fb 생산 개시
- 2005** SMT 라인 확장, 태인 청주사옥 3차 증축
- 2006** 조세의 날 국세청장상 수상, Susol Trip Unit 생산 개시
- 2007** 하이닉스반도체 M/M 8개 라인 구축
- 2008** LS산전(주) Best협력사 부문 최우수상 수상



- 2010** ISO 9001 인증 획득
- 2011** 제38회 상공의 날 석탑산업훈장 수훈
- 2011** ISO 14001 인증 획득
- 2011** 일본공업규격표시(JIS) 획득
- 2013** Metasol Acc 생산 개시
- 2016** Handle 사내 영입
- 2017** 태인 창업 30주년

# 1987-1991

## 창업과 기반 다지기

태인의 역사는 1987년 6월 하순 네 명의 사나이가 청주 신봉동으로 내려오면서 시작된다. 지금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이인정 회장과 김재덕 사장 그리고 퇴사한 정철, 유익현씨였다. 이들은 150평짜리 버섯재배사를 빌려 먼지를 털고 벽을 헹고 창문을 내고 누전차단기 라인을 가설, 기계 설치 이틀만에 제품 출하를 했다.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태인은 2017년 현재 160명의 직원에 연매출 370여억원의 회사로 발전했다.

1987

구태희 LS전선 명예회장 내외분 공장 방문  
왼쪽부터 구태희 LS전선 명예회장 내외분,  
김재덕 사장(당시 차장), 이인정 회장.



1987

태인 창업 3총사

창업 직후인 1987년 8월  
대전해수욕장을 찾은 창업 삼총사  
유익현, 김재덕, 정철(왼쪽부터).  
란닝에 샌들 차림으로 모래밭에 선  
그들의 모습이 당시 태인의 상황을  
암시하는 듯하다.



1989

결방살이 태인의 무재해 고사  
신봉동 시절인 1989년 3월의  
무재해 기원 고사. 이인정 회장이  
시루떡에 북어대가리, 돼지머리와  
삼색과일을 차린 제사상에  
막걸리를 부어놓고 절을 하고 있다.





## 1989

### 내집 마련을 위한 첫삽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행된 태인 사옥 기공식.  
첫 삽을 뜨는 이인정 회장과 내빈들에게 우산 든 사람들이  
하나씩 붙어있다. 한결에 노란 우산 쓴 김재덕 사장  
(당시 차장)이 보인다.

1989

주식회사 태인 청주공장  
사옥 신축 당시의 조감도.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본관이  
2층이었으며 럭키개발에서  
시공했다. 저만치 떨어져 별관  
사출공장이 보인다.



1989

공사 개요 브리핑  
사옥 기공식에서 내빈들에게 공사  
개요를 설명하는 김재덕 사장(당시 차장)  
백중영 금성계전 사장(앞줄 오른쪽)  
참석했다. 1989년 3월 3일의 일이었다.



1989

마침내 내집을 갖다  
6개월여의 공사 끝에 9월 28일  
준공 케익 절단식을 갖는 이인정  
회장 부처와 태인 관계자들.  
실내에서 이루어졌던 까닭에  
기공식과 달리 날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 1991

**일본 후지공장 방문**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한 SMT라인의 기종 선정 작업을 위해 신중을 기하던 태인은 새 기계의 운영기술을 비롯해 세부적인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장을 떠났다.



### 1991

**신축공장의 잔디밭에서**  
 임대해 사용하던 신봉동 공장을 떠나 지금의 청주공장 신축 후 잔디밭에 앉은 이인정 회장(당시 사장)과 김재덕 사장(당시 차장). 현대적 감각의 새 집을 마련한 기쁨이 가득해 보인다.



## 1995

### 태인 사옥 1차 증축

1995년 1월부터 5월에 걸쳐 이뤄진 사옥 증축공사. 설비 증설 등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데도 증축을 한 것은 처음 건축 당시 옥상 방수처리를 잘 못해 비가 많이 오면 샐기 때문이었으니 하자보수와 증축이 반반씩 섞인 성격이었다.

# 1992-1996

## 다각화의 첫걸음, 메모리사업 진출

1992년 6월 하순 태인은 메모리 모듈 SMT 사업에 뛰어든다. 누전차단기 등 전기기기 사업에서 전자사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것이다. 그리고 2층이던 사옥을 3층으로 올렸다. 1990년에 이미 KS표시 허가를 취득했고 이듬해 금성사 협력회사 QC 대상을 수상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태인은 이로써,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다.



## 1992

**최초의 메모리 모듈 라인 설치**  
1992년 7월 태인은 금성통신 오산공장에서 구입한 메모리 모듈 라인을 설치함으로써 전자산업에 진출했다.



## 1995

**손기정 선생과 쿼드 2000**  
1995년 3월 23일 체육장학금 수여를 위해 태인을 방문. 전자사업부를 둘러보는 손기정 선생. 왼쪽에 1992년에 들여온 기계식 SMT의 모델명 '쿼드(Quad)2000'이 선명하다.



## 1996

**태인의 공장 합리화 추진 발대식**  
1996년 9월 공장 합리화 추진 발대식에서 직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는 월드 인더스트리얼 매니지먼트 대표 백대균 선생의 방문지도를 받은 뒤 태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1993

작업지도 중인 김사장  
1993년 전자사업부를 돌아보며  
작업지도를 하는 김재덕 당시 이사.  
불량품 검사를 하는 직원에게  
요령을 설명하다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보고 있다.



## 1996

**LG산전 우수협력회사 현판식**  
 1996년 11월 LG산전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되었다. 이인정 회장(당시 사장), 김재덕 사장(당시 부사장)이 LG산전 관계자들과 LG산전 저압공장 우수협력회사 현판을 사옥 입구에 달고있다.

## 1996

**1996 체육장학금 수여식**  
 1996년 4월 본사 강당에서 거행된, 체육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전달하는 행사. 단상 바로 왼편으로 보이는 손기정 선생과 그 옆의 스키계 원로 백남홍 선생이 주빈으로 초대되었다. 태인은 사육을 지어 입주한 1989년 이래 해마다 체육특기 초·중고 학생들과 충북도내 대학산악부에게 장학금을 주어왔다.





### 1996이후

전자사업부 작업지시  
 업무를 시작하며 전자QC부  
 여직원들에게 작업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관리감독사원. 제조업 회사 태인의  
 사활은 오로지 품질관리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 1996이후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얼굴만큼 큰 돋보기로 제품 검사를  
 하는 전자사업부 직원. 메모리  
 모듈 부품이 갈수록 작아지면서  
 맨눈으로 이상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 1997-2001

## IMF 위기와 태인의 극복

1997년 말 한국은 IMF 관리체제로 떨어졌다. 이 무렵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실업률은 최고 7.6%까지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태인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35명의 관리직 중 14명이 퇴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인은 이 와중에서도 사욕을 증축하고 ISO 9002 인증을 획득했으며 충청북도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1997

#### ISO 9002 인증을 받다

1997년 12월 26일 ISO 9002 인증서를 전달한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전철순 원장과 (주)태인 임직원들. 왼쪽 두번째부터 전철순 원장, 이인정 회장(당시 사장), 김재덕 사장(당시 부사장), 정철 실장(당시)이다. 태인이 ISO 같은 국제표준기구의 인증을 받은 때가 마침 한국이 IMF 구제금융 85억 달러를 받은 12월 24일 직후의 일이라 의의가 더 컸다.





## 1997

### 창업 그리고 10년

회사 강당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전철순  
 원장으로부터 ISO 9002 인증서를 받는 이인정  
 회장(오른쪽)과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 4명으로 출발했던  
 태인은 창업 10년만에 이렇게 당당한 회사로 성장했다.



## 1998

### IMF 이길 수 있다

1998년 2월 3일자 충청일보 7면을  
 채운 'IMF 이길 수 있다'  
 기사. 기획특집 네 번째로  
 (주)태인을 다루었다.



## 1998

### 충청북도 으뜸기업 지정

1998년 11월 충청북도 으뜸기업 지정서를 받고있는 김재택 사장(당시 상무이사). 그 시절 행정기관은 이런 표창으로 기업의 사기를 진작했고 <충청일보> 같은 언론은 'IMF 이길 수 있다'는 기획 기사를 연재, IMF 탈출을 위한 거국적인 몸부림을 쳤다.



## 1999

### 태인의 두 임원과 손기정-김기창 선생정

IMF의 시련기에 일제강점기 민족영웅 손기정 선생(1912~2002)을 모시고 청주의 김기창 화백(1913~2001)을 찾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두 분이 서로 존경하는 친구 사이임을 알고있는 이인정 회장은 양아버지로서 모시던 손기정 선생이 청주에 오실 때마다 김재택 사장과 함께 김기창 화백택을 삼방했다.



## 2000

### 중축 1단계 파일박기

사육이 들어선 곳이 원래 평야지대라 지반이 무른 탓에 2차 중축은 먼저 파일을 박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했다. 게다가 신속시 파일을 80%밖에 안 박은 결과 1차 중축때 지하실이 금이 간 적이 있어 일처리를 더욱 꼼꼼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001

### 체육대회의 치어리더들

2001년 9월의 태인 추계체육대회에서 요란한 춤과 노래로 응원단의 흥을 돋구는 치어리더들. 태인의 분위기는 생산직의 대부분, 회사 전체로도 주류를 차지하는 이들 여자 사원들이 주도한다.









## 2000

**태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다!**

태인의 깃발이 지구의 용마루 에베레스트 정상에  
우뚝섰다. 2000년 10월 4일 13시45분 회사의  
후원을 받은 조철희사원이 이룬 쾌거였다.

# 2002-2006

## 전자사업부의 도약과 라인의 증설

태인의 기반은 저압차단기와 배전반을 생산하는 전기사업부였다. 전자사업부 진출은 1992년에 이루어졌는데, 2005년까지는 기계 업그레이드는 계속됐어도 라인 수는 총 셋에 머물고 있었다. 2006년부터 증설을 본격화, 3월에 한 라인, 5월에 한 라인을 들여오더니 2007년에 1월에도 한 라인, 3월에는 두 라인을 늘려 총 8개 라인을 가동하며 메모리모듈 생산능력은 연 백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어났다.

### 2002

체육장학금 전달  
본사 강당에서 열린 '2002년도 태인 체육장학금 수여식'에서 육상 꿈나무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마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 이인정 회장과 양자관계를 맺은 황감독은 태인의 장학금 수여식에 해마다 참석해왔다.



## 2002

2002체육장학금 수여식  
참가자와 수상자들  
앞줄 왼쪽 두번째 부터 김제덕  
사장, 이인정 회장, 황영조  
감독, 한국등산학교 동창회  
한정삼 후원회장, 청주대학교  
남기창 교수, 맨 뒷줄 왼쪽  
두번째부터 바르셀로나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청주교원대  
이은경 교수, 한 사람 건너 한국인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자  
고상돈씨 미망인 이희수 여사,  
안지영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2002

태인 협력업체 간담회  
2002년 12월 태인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인정  
회장. 2017년 현재 태인은 50여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하고 있다.





### 2003

태인 추계등산대회  
 2003년 10월 계룡산에서 열린  
 사내등산대회. 연례행사지만  
 '대회인 만큼 팀을 구성하여 산행,  
 등수를 매기고 시상도 한다.



### 2004

사출기 아웃소싱  
 2004년 7월 태인은 가공실의  
 사출기를 협력업체로  
 아웃소싱했다.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회사 앞 길가에 트레일러를  
 세워놓고 기계를 실어보내고 있다.

## 2004

### 비 오는 날의 지게차

태인 별관 가공실에서 지게차가 사출기를 하나씩 들고나오고 있다. 이렇게 가공실을 비운 다음에는 공장을 헐고 농구장을 닦았으며 잔디밭에는 2004~2005년에 사육을 증축, 메모리 모듈 라인 증설 공간을 마련했다.



## 2004

### 태인 추계체육대회

2004년 10월 열린 체육대회에서 5인6각 경기를 벌이고 있는 선수들. 남자 사원 두 명과 여자 사원 세 명이 한 조를 이루는 2인 3각의 확대판이다.





## 2005

### SMT 라인 확장

눈 내린 날 들어온 새 공장의 새 기계들.  
이때 태인은 SMT 라인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했고 3대 뿐이던 라인은  
2007년 상반기까지 8대로 확장됐다.



## 2004~2005

### 태인 3차 증축 조감도

주차공간 확보를 염두해 둔 3차 증축 조감도. 농구장쪽으로 뻗어가는 SMT 전용공장을 증축하면서 사옥 형태가 T자로 바뀌었다.



# 2007-2011

## 품질로 승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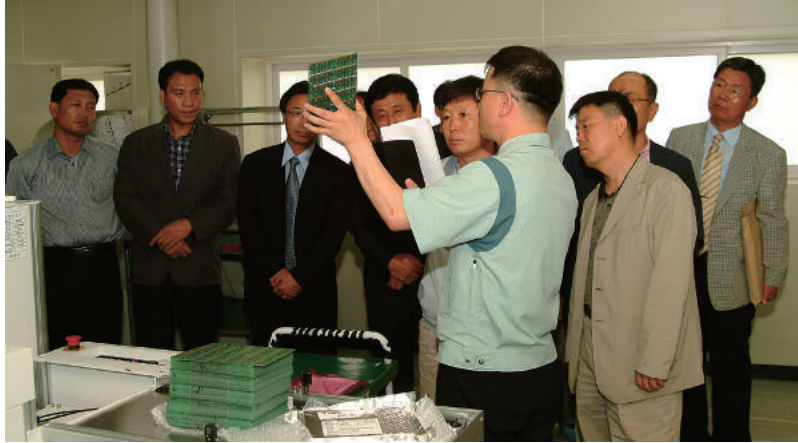
남다른 열정과 성실함으로 달려온 태인의 20년. 각종 훈장과 상패, 국제적인 인증까지 그 든실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다. 태인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사와 직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다.



### 2011

#### 석탑산업훈장을 받다

2011년 3월 16일 태인은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성실하고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태인의 길을 달려온 결과였다.



## 2009

**동반성장은 더불어 가는 길**  
 2009년 협력사 간담회. 태인은 '협력사의 품질이 곧 본사의 품질이라는 생각으로 50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2007

**내부 결속은 동아리로 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진행된 태인산악회 2007년 한라산 산행. 산악회, 볼링회, 마라톤회 등 회사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동호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 2009

**가장 소중한 상은 품질!**  
 2009년, 하이닉스로부터 품질관리상을 받고 있는 김재덕 사장 (당시 부사장). 태인의 수준 높은 기술력을 인정하여 모범적 품질관리 시상을 한 것이다.

## 2009

**회사의 증축은 발전이지요**  
 2009년의 전기 송압공사. 태인은 1989년 본사를 신축하여 입주한 이래 2017년까지 필요에 따라 총 4번의 증축이 있었다.



## 2011

사원의 건강은 회사의 건강입니다  
사내 동아리 중 축구와 풋살은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동아리다. 회사는 사원들의 단합과  
체력증진을 위해 동아리 지원에  
적극적이다.



## 2011

품질 경영의 성과  
하이닉스로부터 품질우수상  
패를 받고 있다. 많은 협력회사  
최초로 품질무사고 2000일 달성을  
기념하기 위한 시상이었다.



# 2012-2017

## 강한 태인, 더불어 성장하는 착한기업

회사를 창립한 지 30주년이 되었어도 태인의 모습은 한결 같다. 창업초기부터 이어져 온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직원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펼쳐온 각종 사내 복지 정책들이 그렇다. 또 '태인체육장학금'과 '우수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오지 초등학교 서울 나들이'와 여러 기부활동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점점 그 폭과 깊이를 넓혀가고 있다.

### 2013

교육은 나라의 미래,  
회사의 미래입니다  
LS산전으로부터 품질관리를 전수  
받은 에이스(ACE)클럽 모임은 태인  
현장을 방문하여 성공적 사례를  
확인하고 관리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2013

직원들의 밝은 웃음이 태인의 미래  
추계야유회에 참석한 직원들의 즐거운  
한 때, 태인의 직원들은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강하다. 이는 창업 이래  
지속되어온 회사 경영방침의 결과다.



## 2013

우리의 조그마한 힘이 모여 올림픽  
메달을 꿈꿉니다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체육선수 중 꿈나무를 키워가고 있는  
체육장학금 수여식이 2013년에도  
열렸다.



## 2014

언제나 앞서가는 태인이고자  
노력합니다

LS산전은 협력회사 중 태인을 가장  
모범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2014년 LS산전 고위 임원들이 태인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있다.





## 2014

회장님, 사장님, 사원이 따로 없지요  
2014년 이인정 회장의 칠순 잔치가  
본사 소공원에서 열렸다.  
사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이인정  
회장의 얼굴이 환하다.



## 2014

산업현장 방문은 공부가 많이 됩니다  
2014년 충북지역에 있는 전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사를 방문하여 전기, 전자  
사업부를 견학하며 현장을 학습하고  
있다.

## 2015

태인은 창업 이래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수사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이 일본 홋카이도로 연수를 떠났다.  
수려한 산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 한 컷.



## 2014

구자균 LS산전 회장(당시 부회장) 방문  
태인은 LS산전과 30년의 끈끈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6**  
 나누면 더 커지는 사회공헌입니다  
 2016년 봄, 태인은  
 (사)청소년문화광장과 함께 강원도  
 인제 진동리에 있는 분교생들의  
 서울문화나들이 사업을 진행했다.  
 그 행사를 취재한 한 잡지사의 기사.

**2016**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다음 주역입니다  
 (사)청소년문화광장은 지속적으로  
 오지의 분교생을 서울로 초청하여  
 문화나들이를 진행하며 사회공헌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





## 2016

만리장성처럼 우리회사 근속 연한은 김니다  
2016년 우수사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이 중국  
북경으로 연수를 떠났고, 일정을 마친 후  
만리장성을 찾아 관광을 즐기고 있다.





2017

함께 동행해 온 30년을 설악산에서  
2017년 4월 2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설악산을 찾았다. 아름다운 동행 1박 2일의  
여행을 축하하듯, 배경으로 서있는 설악산의 마스크트 반달곰도 웃고 있다.





## 2017

### 창립 30주년 기념식

2017년 6월 30일, '태인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CJB청주방송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인정 회장, 김재덕 사장을 비롯한 태인의 전 임직원과 김기현 LS산전 상무, 이두영 CJB회장, 협력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